

景觀選好度의 認知因子에 관한 研究

楊秉彝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造景學科 副教授

A Study on Cognitive Factors for the Landscape Preference

Byoung-E Yang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suggested by Kaplan to the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patterns of Korean peopl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Korean preferences for the landscape. Photo-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wice to collect the data concerning the landscape preferences. The samples of the first survey were selected from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irst survey focused on the preference patterns of Korean people while the emphasis of the second survey was given to the test of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The samples of second survey were also selected from th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hotos in the photo-questionnaire for the first survey included the scenes representing both three landscape styles(Korean, Japanese and Western styles)and three landscape qualities such as the layout of space, the use of landscape plants and the use of stones and rocks. For the second survey, four informational factors such as complexity, coherence, legibility and mystery were selected for inclusion in the photos of photo-questionnaire. Respondents for both survey were asked to respond their preferences on the five-point Likert scal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four informational factors influence significantly the preferences of Korean students. The study indicated that both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fer water and vegetation to rock among the contents of landscape. Among the landscape styles, Japanese landscape style was most preferred and Western landscape style was more preferred than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style. In addition to informational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landscape and landscape style were also major influencing factors on the landscape preferenc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respondents such as age, foreign travel experience, income, residency before the age 14, familiarity and respondent's expertise in landscape architecture seemed to influence the landscape preferences.

* 1989년 10월 24일 접수된 논문임.

* 이 연구는 1988년도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I. 研究의 目的 및 背景

環境心理學分野나 造景學分野에서는 왜 어떤 景觀은 아름답다고 느끼지며 어떤 景觀은 人間들이 좋아하는지에 관해 최근들어 關心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造景學分野에서는 造景의 궁극적 목적이 아름다운 景觀을 造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景觀을 人間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하는 問題는 가장 本質의 研究課題가 되고 있어 이미 歐美國家에서는 人間들이 어떤 類型의 景觀을 아름답다고 느끼며 좋아하는지에 관해 상당한 研究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初步의 水準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조경학자 혹은 조경 전문가들이나 환경심리학자들이 景觀의 아름다움을 評價하기 위한 여러가지 方法들을 시도해 왔는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method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경관의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共通의 으로 活用된 評價技法이 景觀에 대한 選好度를 이용해서 景觀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人間의 心理的 認知過程에 근거를 두고 제시된 方法이기 때문에 景觀의 아름다움을 評價하는 데 있어서 人間과 景觀의 相關關係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接近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人間들이 어떤 景觀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研究들 중 Kaplan 등이 제시한 情報處理模型(Information Processing Model) (Kaplan & Kaplan, 1982)은 그 理論의 근거나 多樣한 研究에 의한 檢證結果에 비추어 가장 有力한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의 模型이 西歐社會에서만 檢證이 되었을 뿐 아직 東洋社會에서는 檢證이 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첫째 景觀選好度에 관해 關聯理論을 再整理하여 體系化시켜 보고 둘째 情報處理模型을 우리나라에서 檢證해 보며 셋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類型의 景觀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넷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景觀에 대한 選好度에 영향을 주는 認知因子는 무엇인지를 究明하는데 研究目的을 두고 있다.

本研究는 環境心理學分野와 造景學分野에서 가장 本質의 課題인 人間들이 어떤 類型의 景觀을 좋아하며 아름답게 느끼는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研究일 뿐 아니라 이미 西歐社會에서 檢證이 된 理論을 東洋社會에서 最初로 檢證한다는 데에서 研究의 意義가 높다고 할 수 있다.

II. 研究方法

本研究는 基本의 으로 調査研究(Survey Research)의 方법을 택하여 연구되었으며 關聯理論의 고찰을 위해서는 文獻調查研究를 주로 택하였다.

韓國人들의 景觀選好度에 관한 資料蒐集을 위해서는 寫眞設問紙(photo-questionnaire)를 이용한 標本調查를 實施하였다.

景觀選好度調查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 바 1次調查는 서울市民과 서울大學校學生을 對象으로 하여 1986년 11월에 이루어졌고 2次調查는 서울大學校學生만을 對象으로 1989년 2월에 調查가 이루어졌다.

1次調查에서의 標本抽出方法은 서울市民의 경우는 만18세 以上的 成人만을 對象으로 多段階無選標集(Multistage Random Sampling)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 바 최종적으로 432인의 調查對象者가 選定되었다. 서울大學生의 경우는 造景學專攻學生과 非專攻學生으로 區分하였으며 造景專攻學生은 서울大農大造景學科와 環境大學院 造景學科 學生中에서 無選標集에 의해 選定되었고 非專攻學生들은 서울大中央圖書館 利用學生들중에서 無選標集을 통해 선정하였는데 1次調查時 選定된 서울大學生은 140人에 이른다. 1次調查에서는 調査對象者 572人中 560人の 設問紙가 回收되어 回收率이 96%에 이르고 있다.

1次調查時 利用된 寫眞設問紙에 포함된 寫眞들은 크게 두가지 基準에 의해 選定되었는 바 하나는 造景要素(Landscape Element)라는 기준으로서 具體의 으로 樹木의 利用, 물의 活用, 岩石의 活用, 空間의 配置라는 項目에 의해 이를 잘 나타내는 景觀을 담은 사진들이 選定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基準은 造景樣式(Landscape Style)이라는 기준으로서 具體의 으로 韓國傳統造景樣式, 日本式造景樣式, 西洋式造景樣式의 기준에 의해 이를 잘 나타내는 景觀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선정되었다. 選定된 사진들이 造景要素와 造景樣式이라는 基準에 合當하게 選定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國內造景專門家들 20人을 對象으로 하여 사진선정을 위한 調査를 實施하였다.

1次調查用 寫眞設問紙를 위해서는 國內에서 촬영된 40枚의 寫眞이 最終 선정되었고 이들 사진들은 모두 黑白寫眞으로 되었는 바 이는 天然色寫眞은 오히려 色彩効果로 인해 本研究에서 重點으로研究하려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였다.

寫眞設問紙는 각 寫眞속의 景觀에 대한 選好度

와 親熟度를 5点尺度의 리커트尺度(Likert Scale)에 應答者들이 表示하도록 하였고 뒷 부분에는 應答者들의 身上에 관한 서술형의 設問이添附되었다.

2次調査는 造景學專攻大學生 60名과 非專攻大學生 240名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 바 造景學專攻大學生은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과 農大造景學科 在學生中에서 無選標集되었고 非專攻大學生은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利用學生들중에서 無選標集되었다.

2次調査에서도 寫眞設問紙를 利用해 調査가 이루어졌는 데 이 때 利用된 寫眞들은 Kaplan의 理論에서 제시된 네 가지 情報因子(Informational Factors) 즉, 複雜性(Complexity), 凝集性(Cohherence), 可讀性(Legibility), 神秘性(Mystery)을 잘 나타내는 景觀이 담겨진 寫眞들을 選定하였다.

寫眞選定을 위해서 서울大 環境大學院 造景學科學生들을 對象으로 각 寫眞들이 情報因子를 얼마나 잘 表現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基本으로 最終的으로 36枚의 黑白寫眞이 選定되었다. 각 寫眞들에 대해 應答者들이 그 寫眞에서 나타난 景觀들에 대한 選好度를 5點尺度의 리커트尺度(Likert Scale)에 表示하도록 하였고 應答者들의 身上에 관한 設問이 追加되었다.

III. 景觀選好度 關聯理論의 考察

최근의 心理學의 동향은 心理學의 研究目標 및 接近方式이란 관점에서 보면 科學的 實驗을 통한 外形的行動만의 연구에서 人間의 知覺, 記憶 및 情報處理過程을 포함하는 思考過程의 연구를 더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心理學의 흐름이 環境心理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바 人間의 環境에 대한 本質的인心理的要求를 情報處理의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情報處理模型(Information Processing Model)이론이 대두된 것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Kaplan 교수부부에 의해 제시되어 환경심리학 분야나 조경학 분야에서 환경의 선호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가장 획기적인 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이론에서는(S. Kaplan and R. Kaplan, 1982) 인간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本質의이고 一般化된心理的慾求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환경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Making Sense)하는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탐색하고 빠져들어가려고 하는(Involvement)慾求이다. 사람들은 환경을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불안감을 갖게

되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파악을 하도록 자극받고 있다. 또한 환경을 탐색하고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욕구는 불확실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도전이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거나 하는 경우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慾求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경험함으로서 認知地圖을 擴大시키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환경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Making Sense)욕구와 환경을 탐색하고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Involvement)욕구는 동시에 나타나는 욕구이며 인간이 환경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인 측면을 가진 욕구이다. 즉 환경을 탐색하고 빠져들게 함이 (Involvement)없는 환경에 대한 이해(Making Sense)는 익숙한 환경에 삶중을 느끼게 하는 반면 환경에 대한 이해(Making Sense)없는 환경의 탐색과 몰두(Involvement)는 방황을 하게 만든다.

인간은 기본적 욕구로서 食慾과 愛慾이 있듯이 환경의 파악과 이해에 대한 욕구와 환경의 탐색과 몰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하는 것처럼 환경의 파악과 이해에 대한 욕구와 환경의 탐색과 몰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하게 된다.

Kaplan의 이론에서는 환경의 파악과 이해에 대한 욕구(Making Sense)와 환경의 탐색과 몰두에 대한 욕구(Involvement)는 선호도 (Preference)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선호도는 우리주변의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에 대한 인간의反應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호도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인간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知覺過程의 延長이라고 할 수 있다.

Kaplan은 환경선호도를 네 가지 情報要素(Informational Factors) 即 凝集性(Cohherence), 複雜性(Complexity), 可讀性(Legibility), 神祕性(Mystery)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려 하는 情報處理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네 가지 情報要素는 (表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미 설명된 인간의 두 가지心理的慾求와 聯繫시킬 뿐만 아니라 時間의 次元과

<表1> 環境選好度의 情報要素(Kaplan이론)

	環境理解 (Making Sense)	環境 탐색 (Involvement)
現在 혹은 即時	凝集性 (Cohherence)	複雜性 (Complexity)
未來 혹은 期約	可讀性 (Legibility)	神祕性 (Mystery)

도 關聯시켜 模型의 물격을 이루고 있다. 이 模型에서 時間的次元을 고려한 것은 選好度란 어떤 사람의 可能性에 대한 評價가 表現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 凝集性(Cohherence)

응집성이란 환경 혹은 경관속에 있는 要素들이 하나 혹은 몇개의 둉어리로 묶어질 수 있도록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는 환경이나 경치속의 구성요소들이 反復의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그룹화할 수 있도록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凝集性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관속의 모든 要素들이 全體환경과 잘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構成要素들이 反復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凝集性은 어떤 경관을 얼마나 쉽게組織화하고 體系化시켜 認知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와 關聯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관이 그 構成要素를 몇개의 식별될 수 있는 뮤음으로 쉽사리 체계화시킬 수 있을 때 凝集性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거꾸로 어떤 景觀이 전혀 體系化 혹은 組織화가 되지 않을 때는 凝集性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나. 複雜性(Complexity)

複雜性은 환경이나 경관이 상당히 複雜하고 多樣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치중相當한 物體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多樣하느냐 하는 程度를 말할 뿐 아니라 景觀의 視覺的 풍부함(Richness) 혹은 視覺的 多樣性을 의미한다.

複雜性은 오래전 부터 實驗美學(Experimental Aesthetics)분야에서 주요한 概念으로 취급되어 關心의 초점이 되어 왔었다. (Berlyne, 1960) 實驗美學에서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中間程度의 複雜性을 가장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등은 複雜性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選好度가 높아질려면 凝集性이 회생되고 複雜性이 있는 것 보다는 複雜性이 있으면서도 凝集性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 神祕性(Mystery)

神祕性은 어떤 環境이나 경관을 보게 되면 더욱 경관속으로 끌려 들게 되어 새로운 것을 發見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치가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어 神祕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새로운 경치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神祕性이 있

는 경치는 이동을 해 가거나 탐색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추측을 하게 한다. 특히 日本式 庭園設計에서는 神祕性이 많이 活用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神祕性과 유사한 개념으로 놀라움(Surpris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개념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놀라움은 새로운 정보가 現存해 있으면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暗示하거나 提示되는 것을 말한다. 神祕性은 지속성이라는 요소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 어떤 경관에서의 새로운 정보가 이전에 지나쳤던 경관의 정보와 관련이 되거나 연속적이 되었을 때 神祕性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부러져 있는 道路景觀이 랄지 나뭇잎으로 가려진 사이로 환하게 보여지는 들판의 경관등이 神祕性이 높은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라. 可讀性(Legibility)

경치 혹은 환경이 뚜렷하게 분간하기 쉬워 길을 잃지 않고 찾아다닐 수 있도록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치가 훤히 틔어 있으며 標識物(Landmark)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可讀性이 높은 환경이란 사람들이 더 멀리 헤매고 다니면 쉽사리 이해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다.

以上 살펴 본 네가지 情報要素는 Kaplan등의 情報處理模型理論의 核心이 되는 것으로 情報處理模型理論은 J. Appleton(1975)의 展望一隱身處理理論(Prospect-refuge Theory)과 같은 맥락의 認知的 파라다임(Cognitive Paradigm)의 부류에 속하는 이론이다.(Zube et. al., 1982).

Kaplan의 情報處理模型理論은 다른 研究者들의 研究에서도 立證이 되고 있다. Ulrich(1977)에 의하면 美國人과 스웨덴人の 研究對象者들에 대한 景觀選好度를 分析해 본 결과 情報的屬性이 景觀選好度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서 제시된 情報要素는 複雜性(Complexity), 神祕性(Mystery), 焦點性(Focality), 深度(Depth), 地表質感(Ground Surface Texture)으로서 이들 要素들이 選好度에 중요하게 聯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mblett등 (1985)은 Kaplan의 理論에 근거하여 특히 神祕性(Mystery)에 焦點을 맞추어 神祕性을 認知하게 하는 物理的特性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 研究에 의하면 차폐의 정도(Screening), 視界距離(Distance of View), 空間의 限定性(Spatial Definition), 物理的接近性(Physical Accessibility), 後面에 빛이 비추이는 숲

(Radiant Forest)등의 다섯가지 물리적특성이 神祕性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Brown등(1982)은 Kaplan의 理論的模型을 이용하여 호주 농촌지역의 景觀의 質을 評價하는 研究를 수행한 바 있다. 이以外에도 Anderson(1978), Herbert(1981), Ellsworth(1982)등의 研究들이 Kaplan의 理論을 立證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선호도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Kaplan의 情報處理模型理論이 소개되지도 않은 質情이어서 이 이론의 우리나라에서의 適合性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IV. 景觀選好類型

1次調査에서 40個의 景觀을 對象으로 하여 調査된 結果를 分析해 보면 選好度의 點數는 1.98~3.89의 範圍에 있으며 平均選好度點數는 2.84로 나타났다. 이는 選好度 調査에 이용된 景觀에 대한 調査對象者들의 反應이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0個의 調査된 景觀중 우선 가장 選好하는 景觀 6개와 가장 선호하지 않는 景觀 6개를 比較해 分析하였다.

가장 選好하는 景觀들의 內容을 分析해 보면 물이 主를 이루는 景觀과 日本式의 造景樣式를 나타내는 景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미 外國에서 이루어진 既存 研究들에서 물이 選好度를 높여주는 要素라는 事實이 立證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研究가 없었던 點에 비추어 볼 때 물이 있는 景觀을 韓國人도 選好한다는 事實은 물의 選好度에 대한 기여효과가 文化的 差異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立證해 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러유형의 물이 있는 景觀中 가장 選好하는 景觀을 좀더 具體的으로 分析해 보면 물의 投影效果가 選好度를 높여주고 있으며 물이 樹木들로 둘러싸여 있는 景觀을 더욱 選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이 있는 景觀中에서도 開放되고 기다란 視界를 갖는 景觀이 더욱 選好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선호되지 않는 景觀은 選好되는 景觀보다 일반적인 모습에 있어서 同質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주로 岩石과 韓國傳統 造景樣式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選好되는 景觀에 비해서 植生이 거의 없으며 四角形의 要素들이 많고 視界가 막힌 경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1次調査에서 使用된 景觀은 세가지 造景樣式 즉 韓國傳統 造景樣式, 日本式, 西洋式의 造景樣式을

나타내는 景觀을 選定하여 調査하였기 때문에 각 造景樣式別로 選好度의 差異가 있는지를 分析하였다. 세가지 造景樣式中 日本式 造景樣式를 가장 選好하였으며 (平均 選好度值:3.08) 韓國傳統 造景樣式를 가장 選好하지 않는 것(平均 選好度值:2.63)으로 나타났다. (表2 參照). 특히 西洋式 造景樣式이 韓國傳統 造景樣式보다 더 選好되고 있다는 事實은 아주 特異한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式 造景樣式이 가장 選好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 하나는 본 研究에서 선정된 일본식 양식을 나타내는 경관들이 韓國傳統 造景樣式이나 西洋 造景樣式을 나타내는 경관들보다 그림자와 비추어진 水景이 랍지 植生景觀等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두가지 양식보다 자연스런 형태와 비정형적인 형태를 띠우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西洋式 造景樣式을 韩國傳統 造景樣式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본 研究에서 선정된 西洋式 造景樣式를 나타내는 경관들이 岩石이라는 要素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보다 개방된 視界를 보여주는 경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는 調査對象者를 一般市民과 大學生으로 區分하여 比較해 본 結果 西洋式 造景樣式에 대한 市民들의 選好度가 大學生들의 選好度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表3 參照) 30歲 以下의 同一年齡層의 市民그룹과 大學生그룹을 비교해 본 결과 日本式 造景樣式에 대한 大學生그룹의 選好度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4 參照) 그 이외에는 시민그룹과 大學生 그룹의 選好度間에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次調査에서 活用된 景觀은 造景樣式外에도 세 가지 주요 造景要素 즉 물, 樹木, 岩石이 包含되어 있는 景觀이 選定되었기 때문에 造景要素別로 選好度의 差異가 있는지를 아울러 分析하였다.

分析結果 세가지 造景要素中에서는 물이 가장

<表2> 조경양식별 선호도에 대한
Pairwise t-test

造景樣式의 組合	選好度 平均值	平均 值差	SD	t	p
韓國傳統 造景樣式	2.63	-.45	.57	-18.64	.000
對 日本式 造景樣式	3.08 N=550				
韓國傳統 造景樣式	2.63	-.26	.68	-8.95	.000
對 西洋式 造景樣式	2.89 N=550				
日本式 造景樣式	3.08	.19	.74	6.01	.000
對 西洋式 造景樣式	2.89 N=550				

選好되는 要素(平均 選好度值:3.18)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이 樹木이고(平均選好度值:2.97) 岩石이 가장 選好되지 않는 要素(平均選好度值:2.42)로 나타났다. (表5参照).

이는 이미 外國에서 遷行되었던 選好度의 研究에서 選好度를 增大시켜주는 要素가 물과 樹木으로 밝혀진 研究結果와 同一한 研究結果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물과 樹木은 文化的 差異에 不拘하고 大部分의 사람들에게 選好되는 要素라는事實이 立證된 것이다. 물이 가장 選好되는 要素로 밝혀졌지만 물에 對한 選好度值을 살펴보면 調査된 景觀에 따라 2.35~3.74의 範圍를 나타내고 있

<表3> 造景樣式에 대한 選好度의 階層別比較
(市民對學生)

造景樣式	階層		檢證值	DF	P
	市民	學生			
韓國式	平均值	2.66	2.55	T=1.58	.1143
	變量	.53	.46	F=1.16	.1593
	N	415	135		
日本式	平均值	3.06	3.15	T=-1.22	.2247
	變量	.50	.46	F=1.10	.2626
	N	415	135		
西洋式	平均值	2.95	2.70	T=3.67	.0003
	變量	.52	.39	F=1.34	.0234
	N	415	135		

<表 4> 造景樣式에 대한 選好度의 階層別比較
(30才以下 市民과 學生)

造景樣式	階層		檢證值	DF	P
	30歲以下市民	學生			
韓國式	平均值	2.46	2.54	T=-1.08	.2820
	變量	.47	.46	F=1.03	.4225
	N	196	134		
日本式	平均值	2.96	3.14	T=-2.29	.0228
	變量	.51	.45	F=1.13	.2287
	N	196	134		
西洋式	平均值	2.85	2.70	T=1.91	.0575
	變量	.52	.39	F=1.34	.0366

<表5> 造景要素別 選好度에 대한 Pairwise t-test

造景要素의組合	選好度 平均值	平均值差 SD t p		
		市民	學生	
물 對 岩 石	3.18 2.42	.76 N=550	.63 N=550	28.06 .000
물 對 樹 木	3.18 2.97	.21 N=550	.56 N=550	8.77 .000
岩石對 樹 木	2.42 2.97	-55 N=550	.55 N=550	-23.92 .000

는 바 이는 물에 대한 選好度가 물의 類型이나 景觀內에서의 물과 다른 景觀要素간의 關係에 따라 差異가 있음을 보여주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例를 들면 물에 그림자가 投影된 景觀이 물의 投影効果가 없는 景觀보다 더욱 選好된다든지, 樹木이 없는 물의 景觀의 경우는 分수와 같은 動的인 물이 연못과 같은 靜的인 물보다 더욱 選好된다든지, 길고開放된 視界를 갖는 물의 景觀이 좁고 가까운 視界를 갖는 물의 景觀보다 더욱 選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樹木의 경우도 外國의 研究와 마찬가지로 選好되는 景觀要素로 밝혀졌지만 選好度值가 調査된 景觀에 따라 2.44~3.89의 範圍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樹木의 경우도 물과 마찬가지로 樹木의 類型이나 樹木과 景觀內의 他景觀要素와의 關係에 따라 選好度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意味한다. 樹木이 물과 함께 있는 景觀이 樹木만 있는 景觀보다 선호되고 있으며 密植된 樹木景觀이 드문 드문 있는 樹木景觀보다 더욱 選好되고 自然스런 配植形態가 整形式의 配植形態보다 選好되고 있다.

外國에서는 그다지 研究되지 않았던 要素인 岩石은 本研究에서 가장 選好되지 않는 要素로 밝혀졌다. 岩石에 대한 選好度值을 살펴보면 1.98~2.88의 範圍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岩石도 다른 要素와 마찬가지로 岩石의 特徵과 周邊要素와의 關係에 따라 選好度의 差異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例를 들면 樹木과 함께 있는 岩石이 樹木이 없는 岩石보다 더욱 選好되고 있으며 岩石이 樹木에 의해 둘러싸이거나 樹木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景觀이 담장이나 다른 岩石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岩石景觀보다 더욱 選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岩石의 配置에 있어서도 岩石이 分散

<表 6> 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의 階層別比較
(市民對學生)

造景要素	階層		檢證值	DF	P
	市民	學生			
물	平均值	3.19	3.15	T=.53	.5976
	變量	.46	.33	F=1.40	.414,134 .0103
	N	415	135		
岩石	平均值	2.43	2.40	T=.34	.7359
	變量	.54	.47	F=1.17	.414,134 .1453
	N	415	135		
樹木	平均值	2.99	2.91	T=1.16	.2456
	變量	.49	.42	F=1.17	.414,134 .1404
	N	415	135		

되어 配石되어 있는 것보다 景觀의 焦點이 될수 있도록 岩石이 配石되어 있는 경관이 더욱 선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가 調査對象者の 그룹별로 즉 市民그룹과 大學生그룹간에 差異가 있는지를 分析해 본結果(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統計的으로 有意性있는 差異가 없음이 立證되었다. 또 한 30歲以下の 年齡層의 市民그룹과 大學生그룹만을 造景要素別 選好度에 差異가 있는지를 分析해 본結果 이들 그룹간에도 選好度의 差異가 없음이 立證되었다.(表7 參照)

(表 7) 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의 階層別 比較
(30歲 以下市民과 學生)

造景要素	階層		檢證值	DF	P
	市民	學生			
물	平均值	3.11	3.15	T = -.55	328 .5830
	變量	.51	.33	F = 1.55	195,133 .0034
	N	196	134		
岩石	平均值	2.29	2.40	T = -1.41	328 .1598
	變量	.52	.46	F = 1.12	195,133 .2483
	N	196	134		
樹木	平均值	2.83	2.91	T = -.99	328 .3205
	變量	.48	.42	F = 1.14	195,133 .2048
	N	196	134		

景觀選好類型을 더 深層의으로 파악하기 위해 第1次調査資料를 非計量的 要因分析技法인 SSA-III(Guttman-Lingoes Smallest Space Analysis III)를 이용해 分析해본 결과 4개의 카테고리가 導出되었다. 이 分析技法은 人間들의 選好度에 內在된 內容領域(Content Domain)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여러경관에 대한 人間의 反應패턴의 類似性을 토대로 하여 그룹화를 시켜준다. 여기에서 도출된 카테고리는 視覺的인 檢討를 거쳐 각 카테고리의 共通의인 特征이나 形상을 구명하게 된다.

SSA-III 分析技法에 의해 導出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제1카테고리-「植生이 약간 섞인 岩石景觀」;

이 카테고리에는 약간의 植生이 있거나 혹은 植生이 전혀 없는 韓國傳統의 岩石이 있는 경관 12개와 日本式 岩石이 있는 景觀 1개로 구성되어 岩石이主流를 이루는 카테고리이다. 이 카테고리는 4개 카테고리중 가장 낮은 選好度 平均점수 (2.46)를 받았다.

제2카테고리-「植生으로 둘러싸인 물이 있는 景觀」;

이 카테고리는 日本式의 물이 있는 景觀 5개와 韓國傳統式의 물이 있는 景觀 2개, 그리고 日本式 岩石이 있는 景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카테고리가 4개의 카테고리중에서 가장 높은 (3.50) 선호도 점수를 받았는 바 이는 植生으로 둘러싸인 물이 있는 景觀이 가장 選好되는 경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第3카테고리-「西洋整形式 植生景觀」;

이에는 9개의 景觀이 屬하는 바 動的인 물이 있는 景觀, 幾何學的으로 전정된 植生, 均衡을 이루고 整形的인 空間配置가 된 景觀이 主가 되고 있다. 또한 이에 屬하는 景觀들은 모두 西洋式 造景樣式을 띠우고 있다.

第4카테고리-「西洋非整形式 植生景觀」;

3개의 景觀이 이 카테고리에 屬하는 바 이들은 모두 非整形式의 植生과 開放된 草原등의 景觀들이다.

이 카테고리의 景觀들은 모두 西洋式景觀들이다. 韓國人們은 西洋式景觀을 整形式景觀과 非整形式景觀으로 뚜렷이 구분하고 있는 選好패턴이 第3, 第4카테고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第4카테고리가 네개의 카테고리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選好度平均點數를 얻고 있는데 이는 整形式景觀보다는 非整形式景觀을 더 選好하고 있다는事實을 立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第2次調査에서 調査된 36個의 景觀中 選好度가 높은 景觀의 特徵은 自然狀態의 景觀이 主가 되고 있어 人工的要素가 거의 없으며 비교적 質感(Texture)이 부드럽고 視界가 트여있으면서 遠景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視界가 막힌 景觀의 경우는 神祕性이 높은 景觀을 形成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選好度가 가장 낮은 景觀의 特徵을 살펴보면 建物이나 동상등의 人工構造物들이 포함되고 있고 樹木의 形態도 전정을 하여 整形的形態를 띠고 있음으로 해서 人工景觀이 主가 되고 있다. 또한 視界도 막히고 좁은 視界를 形成하고 있어서 近景이 主를 이루고 있으며 質感(Texture)에 있어서도 거친 느낌을 주고 있다. 大部分의 景觀이 神祕性이 없으며 複雜性이 낮은 景觀과 複雜性이 높다 해도 凝集性이 낮은 景觀이 主를 이루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관선호도를 造景專攻者와 非專攻者로 分離하여 比較해 본 결과 가장 좋아하는 景觀에서는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경관에 있어서도 가장 좋아하는 경관처럼 뚜렷한 差異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선호도

<表8> 조경전공/비전공별 선호도 비교 (가장 좋아하는 경관)

순위	조경전공		비전공	
	사진번호	선호도점수	사진번호	선호도점수
1	22	3.50	29	3.97
2	12	3.50	33	3.64
3	26	3.40	17	3.64
4	29	3.40	22	3.31
5	28	3.35	24	3.29
6	7	3.35	1	3.25

<表9> 조경전공/비전공별 선호도 비교(가장 좋아하지 않는 경관)

순위	조경전공		비전공	
	사진번호	선호도점수	사진번호	선호도점수
1	9	1.65	15	1.59
2	13	1.75	20	1.86
3	15	1.80	5	1.88
4	8	1.85	9	1.90
5	10	1.85	35	1.91
6	35	1.90	8	2.01

의 순위에서는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表9 참조)

V.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認知因子

이미 外國에서 遂行된 景觀選好度에 관한 研究에 의하면 여러가지 要素들이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졌다.

本章에서는 이들 外國理論에서 밝혀진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認知因子들이 韓國狀況에서도 適用可能한지를 檢討하고 특히 Kaplan의 理論의 適用可能性을 重點으로 論議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章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경관선후도에 영향을 미치는 情報的因子와, 景觀의 內容, 景觀의 構成, 視覺者的 社會經濟的 背景이 主가 될 것이다.

1. 情報的 因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Kaplan은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情報因子로서 네 가지를 즉 凝集性(Cohherence), 複雜性(Complexity) 可讀性(Legibility), 神祕性(Mystery)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因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影響을 미치고 있는지를 檢證해 보기 위해 第2次調查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第2次調查에서는 각 情報因子

들의 程度(Degree)를 나타내는 景觀을 利用해 調査되었기 때문에 각 因子別로 例를 들면 複雜性의 程度를 上中下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각 그룹에 屬하는 景觀에 대한 選好度 點數의 平均值를 算出하여 分散分析(ANOVA 分析)을 하였다.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複雜性에 있어서는 複雜性이 아주 높거나 혹은 아주 낮은 경우가 아닌 中間程度의 複雜性을 가질 때 가장 選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外國의 研究에서 (Kaplan et.al., 1972; Wohlwill, 1968; Vitz, 1966) 複雜性과 視覺的選好사이에는 거꾸로 된 U字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 바 韓國人의 경우도 이러한 關係가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複雜性이 上中下로 달라질 때 각각의 選好度平均值가 有意性 있게 差異가 있다는 것은 複雜性이라는 要素가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因子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凝聚性(Cohherence)의 경우는 凝集性이 가장 높을 때 選好度가 가장 높고 凝集性이 중간水準일 때 選好度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凝集性이 가장 낮을 때 選好度가 중간水準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10참조)凝聚性이 중간水準일 경우에 凝集性이 가장 낮을 때보다 오히려 選好度가 낮은 것은 중간水準의 凝集性이 있는 경관들은 反復의으로 人工的要素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反面 凝集性이 낮은 景觀들은 自然的要素가 主가 되고 있으며 自然스러운 景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凝聚性이 많고 적음에 따라 選好度平均值가 有り性이 있게 差異가 있음을凝聚性도 역시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情報因子라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可讀性(Legibility)의 경우도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可讀性이 가장 높을 경우에 選好度平均值가 가장 높고 中間水準의 可讀性이 있을 경우는 中間의 選好度平均值을 보여주고 있으며 可讀性이 가장 낮은 경우에 選好度平均值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可讀性과 選好度值間に 正의 相關關係가 있을 可能性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研究結果는 이미 研究된 Kaplan의 理論(S. Kaplan and R. Kaplan, 1982)과 一致되는 研究結果라고 할 수 있다.

可讀性이 높으나 낮으나에 따라 選好度平均值가 有り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可讀性의 경우도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情報因子中의 하

<表 10> 情報因子의 程度別 選好度의 比較
(2次調査－全 調査對象者)

情報因子	因子의 程 度	選好度 平均值	F	P
複雜性	上	2.94	17.05	0.0001
	中	3.03		
	下	2.49		
凝集性	上	2.95	56.31	0.0001
	中	1.99		
	下	2.61		
可讀性	上	2.88	7.48	0.0006
	中	2.69		
	下	2.47		
神秘性	上	3.09	5.43	0.0045
	中	2.91		
	下	2.79		

나라는 事實을 韓國人에 대한 選好度調査에 의해 立證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神祕性(Mystery)에 대해 살펴보면 神祕性이 가장 높은 경우에 選好度平均值가 가장 높으며 中間水準의 神祕性을 나타내는 경관일 때 中間程度 選好度를 나타내고 神祕性이 가장 낮을 때 선호도평균치도 역시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表10 참조) 이는 神祕性의 경우도 可讀性과 마찬가지로 神祕性과 選好度간에 正의 相關關係가 있을 가능성을 暗示해 준다고 할 수 있다.

神祕性의 경우도 神祕性의 多少에 따라 選好度平均值가 有意的인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現象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는 神祕性이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라는 事實을 立證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서 Kaplan등의 情報處理模型理論에서 제시한 神祕性이 韓國의 경우도 適用되고 있음을 立證해 주고 있다.

Kaplan등의 情報處理模型理論에서 提示된 情報因子들이 選好度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外國에서는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檢證되지 않고 있었던 바 本研究에서의 우리나라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選好度分析에 의하면 複雜性(Complexity), 凝集性(Cohherence), 可讀性(Legibility), 神祕性(Mystery)의 네가지 情報因子가 모두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因子라는 것이 立證되었으며, 따라서 Kaplan의 情報處理模型理論은 우리나라에도 適用될 可能性이 높은 理論이라는 것이 立證된 셈이다.

調查對象者의 專門性이 그들의 選好度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情報因子別로

選好度平均值를 造景專攻大學生과 非專攻大學生으로 區分하여 比較하였다. 造景專攻大學生과 非專攻大學生간에는 凝集性에 있어서만 類似한 選好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複雜性, 可讀性, 神祕性에 있어서는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複雜性의 경우 造景專攻大學生은 複雜性이 높을 때 選好度가 높으며 複雜性이 낮을 때 選好度가 낮게 되는 正의 關係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非專攻大學生은 中間水準의 複雜性일 때 選好度가 가장 높고 複雜性이 가장 높을 때 中間程度 選好度를 갖으며 複雜性이 가장 낮을 때 選好度가 가장 낮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可讀性의 경우는 造景專攻學生은 中間程度의 可讀性이 있을 때 選好度가 가장 높고 가장 可讀性이 적을 때 選好度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非專攻學生은 可讀性이 가장 높을 때 選好度值도 가장 높고 可讀性이 가장 낮을 때 選好度도 가장 낮은 正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神祕性의 경우는 造景專攻大學生은 神祕性이 높으면 選好度도 높고 神祕性이 낮으면 選好度도 낮아지는 正의 關係를 갖는 반면 非專攻大學生은 神祕性의 程度가 달라짐에 따라 選好度가 有意의인 變化를 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2. 景觀의 內容

外國의 研究에서는 景觀의 內容(Content)이 景觀選好度에 重要한 영향을 미치는 因子로 밝혀졌으며 특히 自然環境으로 부터 提供되는 물과 수목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aplan & Kaplan, 1982) 우리나라에서도 本研究의 一環으로 수행된 1次調査 結果에 의하면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목과 물, 岩石의 選好度 平均值가 有意의으로 差異가 있는 바 이는 물, 수목, 암석과 같은 景觀의 內容이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結果는 文化的 差異에 불구하고 景觀의 內容이 景觀의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要素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景觀의 構成

外國의 研究에서는 景觀의 構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Patsfall et, al 1984), 景觀의 깊이 (Depth)와 촛점(Focality)이 어떻게 되었느냐(Ulrich, 1983)등이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國內의 既存研究에서도 잔디밭의 경우 花

<表 11> 情報因子의 程度別 選好度의 比較
(2次調査—造景專攻과 非專攻)

		造景專攻大學生			非專攻大學生			
情報因子	因子의 程 度	選好度 F P		選好度 F P		平均值	平均值	
		上	3.02	5.58	0.0045	2.92	12.42	0.0001
複雜性	中	2.93				3.06		
	下	2.40				2.51		
	上	3.28	31.71	0.0001	2.87	33.46	0.0001	
凝集性	中	1.87				2.02		
	下	2.73				2.58		
	上	2.72	4.03	0.019	2.92	7.18	0.0008	
可讀性	中	3.05				2.60		
	下	2.45				2.48		
	上	3.25	8.13	0.0004	3.05	1.72	0.181	
神祕性	中	2.85				2.92		
	下	2.50				2.86		

木의 境界線의 길이 (趙東範, 廉道義, 1985), 中庭의 空間比例(李台熙, 任勝彬, 1987)등이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研究의 1次調査에서 얻어진 資料를 이용해 造景樣式의 差異에 따라 選好度의 差異가 있는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傳統造景樣式, 日本式造景樣式, 西洋式造景樣式間에는 韓國人 調查對象者の 選好度平均值에 있어서 有意의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造景樣式이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영향인자라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4. 視覺者의 社會經濟的 背景

本研究의 1次調査資料를 이용해 視覺者의 社會經濟的 背景이 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分析해 본結果 서울市民의 경우는 年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로 밝혀졌다. (表12)와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平均值와 造景樣式에 대한 選好度平均值에 있어서 年令層別로 有意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即 56歲以上 年令層의 市民그룹은 30歲以下 年令層의 市民그룹보다 造景要素 뿐만 아니라 造景樣式에 대한 選好度에서 一貫性있게 平均值가 높은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海外旅行經驗, 教育程度, 所得, 14歲以前居住場所등의 社會經濟的 背景要素가 選好度에 약간씩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外國의 研究에서 선호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親熟度(Familiarity)가

<表12> 年令層別 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의 比較(서울市民)

造景要素		年齡層			
		1~30	31~45	46~55	56세 이상
물	選好度 平均值 F P	3.11 3.70 0.0119	3.26	3.13	3.49
	選好度 平均值 F P	2.29 6.38 0.0003	2.55	2.44	2.78
	選好度 平均值 F P	2.83 7.52 0.0001	3.12	3.04	3.30

<表13> 年齡層別 造景樣式에 대한 選好度의 比較(서울시민)

造景樣式		年齡層			
		1~30	31~45	46~55	56세 이상
韓國式	選好度 平均值 F P	2.46 12.22 0.0000	2.81	2.77	3.11
	選好度 平均值 F P	2.96 5.06 0.0019	3.15	3.00	3.42
	選好度 平均值 F P	2.85 3.62 0.0133	3.09	2.90	3.08

選好度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親熟度와 選好度間에는 높은 相關關係($r=.8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第2次調査資料를 分析한 결과에 의하면 造景專攻大學生과 非專攻大學生간에 凝集性에 있어서만 類似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複雜性, 可讀性, 神祕性에 있어서는 選好패턴의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表11 참조) 이는 調查對象者の 專門性이 選好度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I. 맺는 말

本研究에서는 人間들이 어떤景觀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지에 관한 研究 즉 景觀選好度研究들 중 그 理論的根據와 多樣한 他研究에서의 檢證結果에 비추어 볼 때 가장 有力한 理論으로 대두되어 있는 Kaplan등의 情報處理模型(Information Processing Model)理論을 우리나라에서도 妥當한 理論인가를 檢證하고자 하였다. 韓國大學生들의 選好度를 調查分析한 結果에 의하면 Kaplan등의 理論에서의 네가지 情報의 因子들 複雜性(Complexity), 凝集性(Cohherence), 可讀性(Legibility), 神祕性(Mystery)이 景觀選好度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要素라는 것이 立證되고 있는 바 이는 Kaplan등의 理論이 韓國에서도 適用될 수 있는 妥當한 理論이라는 것을 證明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景觀類型이 어떤 類型인가를 調查分析하였는 바 外國에서 選好되는 경관요소로 立證된 경관유형인 물이나 樹木등의 景觀 要素를 選好하는 反面 岩石은 오히려 選好度가 相對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造景樣式中에서는 日本式造景樣式를 가장 選好하고 韓國傳統造景樣式보다는 西洋式造景樣式을 오히려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認知因子를 調査分析한 결과에 의하면 複雜性, 凝集性, 可讀性, 神祕性등의 情報의 因子, 景觀의 內容(Content), 景觀의 構成類型이라고 할 수 있는 造景樣式등의 因子들이 景觀選好度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視覺者の 社會經濟的 背景도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年齡, 海外旅行經驗, 教育程度, 所得, 14才以前 居住場所, 視覺者の 造景專門性등이 약간씩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以外에도 視覺者の 景觀에 대한 親熟度가 景觀選好度에 영향을 미치는 要素로 作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景觀選好度에 關한 研究가 日淺하며 Kaplan등의 情報處理模型理論은 소개조차 되지 않은 實情이다.

本 研究에서는 Kaplan등의 理論의 우리나라에서의 適用可能性을 檢證하였고 韓國人들의 景觀選好度의 認知因子를 究明하였다. 本 研究의 研究結果는 造景學이나 環境心理學의 理論發展 뿐 아니라 造景設計에서 活用될 수 있는 設計指針이나 考慮事項까지도 導出해 낼 수 있기 때문에 造景實務上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引用文獻

1. 李台熙, 任勝彬(1987) “상체 비교기법을 통한 中庭의 시각적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호 : 3-20.
2. 趙東範, 廉道義(1985), “시각적 선호에 있어서 Green Foundation의 效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호:95-107.
3. Anderson, E.(1978) “Local Perceptions of Familiar Natural Environm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4. Appleton, J.(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London, Wiley.
5. Berlyne, D.E.,(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Y. Mc Graw-Hill.
6. Brown, T.J., and Itami, R.M.(1982) “Landscape Principles Study;Procedures for Landscape Assessment and Management—Australia”, *Landscape Journal*, 1, Fall : 113-121.
7. Ellsworth, John C.(1982) “Visual Assessment of Rivers and Marshes: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of Visual Units, Perceptual Variables and Preference.” Unpublished MLA Thesis,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8. Gimblett, H.R., Itami, R.M. and Fitzgibbon, J.E. (1985) “Mystery in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Landscape Preference”, *Landscape Journal* 4(2) : 87-95.
9. Herbert, J.E.(1981) “Visual Resource Analysis: Preference and Prediction in Oak Land County, Michigan”, Unpublished MLA Thesi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0. Kaplan, S., Kaplan R. and Wendt J.S.(1972) “Rated Preference and Complexity for Natural and Urban Visual Material”,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12 : 354-356.
11. Kaplan, S. and Kaplan, R.(1982), *Cognition and Environment*, N.Y., Praeger : 77-88
12. Patsfall, M.R., Feimer, N.R., Buhyoff, G.J. and Wellman, J.D.(1984), “The Predictions of Scenic Beauty from Landscape Content and Composi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 : 7-26.
13. Ulrich, R.S.(1977), “Visual Landscape Preference:A Model and Application”, *Man-Environment Systems*, 7 : 279-293.

14. Ulrich, R.S.(1983), "Aesthetic and Affective Response to Natural Environment", in Altman, I. and Wohlwill, J.F.(eds.), *Behavior and the Natural Environment* : 85—125.
15. Vitz, P.C.(1966), "Preferences for Differents of Visual Complexity" *Behavioral Science*, 11:105—114.
16. Wohlwill, J.E.(1968), "Amount of Stimulus Exploration and Preference as Differential Functions of Stimulus Complexity"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4(5):307—312.
17. Zube, E.H., Sell, J.L. and Taylor, J.G.(1982), "Landscape Perception:Research Application and Theory." *Landscape Planning* 9(1) : 1—33